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BONE SPARROW
가제 : 참새 인형
저자 : Zana Fraillon
출판사: Orio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6년 7월 1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거대한 울타리 안, 커다란 텐트에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을 난민 캠프에서 살아온 아이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자물쇠가 잔뜩 채워진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수비. 수비에겐 엄마와 늘 멍청하다고 구박만 하는 누나 퀴니가 있다. 수비의 가족과 비슷한 친네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텐트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곳. 퀴니는 사람들이 누워 자는 가구가 진짜 침대도 아니며 군인들이 쓰던 침상에 낡은 군인 담요를 덮은 것뿐이라고 말해주었다.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수비와 달리, 항상 무언가에 짜증이 나 있는 퀴니는 글자도 쓸 줄 알고 주변 모든 것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저 멀리 어렵풋한 파도소리로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바다로부터 어느 날 텐트 앞까지 밀려온 예쁜 조개 껍데기를 수비가 주운 날, 웬 쓸데없는 짓이냐고 타박하면서도 수비가 그린 조개 그림 밑에 제목을 붙여 주는 것도 퀴니였다. 그런 퀴니도 이곳 캠프의 다른 아이들과 닮은 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하비가 찾아오면 울타리 쪽으로 달려나가 환한 미소로 박수치고 환영하며 손을 흔들어댄다는 사실이다.

하비는 울타리 너머에서 캠프 사람들을 보러 오는 재킷 입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다른 재킷들은 기계적으로 사람들 숫자만 셀뿐 다른 것엔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하비는 달랐다. 캠프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웃긴 표정도 지어 보이며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수비가 주운 조개껍데기를 보자 하비는 활짝 웃으며 어릴 때 자신의 아버지와 집 앞 해변가에서 파도에 쓸려온 조가비들을 모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캠프에서 수비와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엘리도 수비의 조개껍데기를 귀에 대고는 한참 할 말을 잃었고, 다른 아이들도 갖고 싶어했다. 하지만 수비는 웬지 이 예쁜 조개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빠가 보내준 것만 같아서, 혹시나 망가지면 어쩌나 염려되어 땅 속에 숨겨버렸고 결국 힘센 아이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야 했다. ,

사람들의 무관심, 샤워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열악한 생활 속에 찾아온 또 한 명의 난민 소녀

지미에겐 엄마가 영원히 눈을 감기 직전에 건넨 작은 참새 인형이 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

는 듯한 그 참새의 두 눈이 지미는 예전부터 너무 무섭게 느껴졌지만, 엄마는 가족 끈을 달아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딱딱한 새 인형의 등을 톨만 나면 쓰다듬었다. 집안 대대로 이 땅에 살다가 가진 조상들의 영혼이 이 작은 참새 속에 다 들어 있다고 엄마는 말씀하셨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엄마가 건넌 가족 목걸이를 지미는 마지못해 엄마처럼 목에 걸었다. 엄마 장례식에서 한 손을 아버지가 꼭 잡고 있는 동안 다른 쪽 손으로 엄마가 하던 것처럼 참새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세상엔 남은 가족은 아버지와 자신 뿐이란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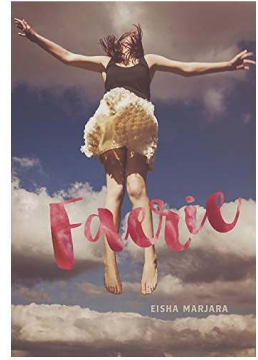
하지만 얼마 후 아버지는 어딘가로 사라졌고, 홀로 남은 지미는 수비가 있는 캠프로 오게 된다. 처음 마주한 두 사람.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기만 한 지미에게 태어날 때부터 캠프가 세상의 전부인 수비는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이 아이들은 대체 왜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할까? 한 때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 캠프 사람들의 단체 사진을 찍어가고, 재킷 입은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와서 종이에 인쇄된 사진을 보여주면서도 사진 밑에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았던 일을 수비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퀴니는 그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수비에게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했다고 욕을 했었다. 사진이 신문에 실린 후 몇 달 동안, 캠프에는 바깥 세상 사람들이 보낸 장난감이며 옷가지, 생활용품들이 쏟아졌다. 그러다 뚝 끊어져버린 세상의 관심. 언제까지 이곳에서 지내야 할까? 이곳에서 나간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까? 수비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었다.

호주 출신인 작가가 실제로 호주에서 머물고 있는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얻어 완성한 이 소설은 고향 땅의 끔찍한 폭력 사태를 견디다 못한 엄마가 피난 생활을 시작하면서 난민 수용소에서 나고 자란 수비라는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난민 캠프의 실상과 난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엄마를 잃고 아버지가 사라지면서 수비의 곁에 찾아온 또 다른 난민 아이 한 명.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국적도 갈 곳도 잃어버린 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자나 프레일론(Zana Fraillon)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살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출산 후 그림책과 중급 소설을 여러 편 완성했다.

제목 : FAERIE
가제 : 요정
저자 : Eisha Marjara
출판사: Arsenal Pulp Press
발행일: 2016년 4월 1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정신학과 병동에서 7개월째 치료 중인 소녀, 시간을 영원히 거스르고 싶은 소녀의 위험한 도전

열여덟 살이 된 날, 릴라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여덟이라는 나이는 릴라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한 사람의 여성이자 성인이 되는 일, 그보다 끔찍한 건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도 있는 나이라는 사실을 릴라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몸에 남아 있는 살을 아무리 줄인다 해도 자연이 만든 시간의 흐름만은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 릴라는 그 무기력함이 두려웠다. 그리하여 2월 중순의 생일날 아침, 릴라는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겨우 30 킬로그램 남짓한 종잇장 같은 몸을 병원 엘리베이터에 실었다. 금세 병원에서 벗어나 활기찬 길거리를 달리자니 노래가 절로 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릴라는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폐가 숨쉴 때마다 아파오기 시작하고, 갈비뼈가 피부를 짓누르는 것이 느껴졌다. 숨이 턱에 차 제대로 공기를 들이킬 수도 내쉴 수도 없었다. 결국 뒤쫓아온 병원 직원들에게 붙들린 릴라는 구급차에 실려 진정제를 맞고 독방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성 캐서린 병원의 4층에 자리한 정신학과 병동. 릴라는 210일째 이곳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심리상담, 행동치료, 전기충격 치료에 약물치료, 식이요법까지 다 받아봤다. 병동 내에서 릴라는 어떤 치료도 먹히지 않는 환자로 명성이 자자한 소녀였다. 키 160 센티미터에 30 킬로그램인 소녀에게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그리 다양한 것도 아니었다. 담당 의사인 메서 박사는 릴라의 탈출 시도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행동 교정 치료'의 강도를 높이고 당분간 독방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면회, 전화, 독서, 글쓰기, 라디오 듣기 모두 금지됐다. 화장실도 가고 싶을 때마다 일일이 간호사를 호출해야 하고, 직원들 외엔 그 누구와도 말을 할 수 없다. 릴라는 분노했지만, 고통스러운 식사 시간에 비하면 다른 건 다 참을만했다. 독방 신세가 된 첫 날, 처음 보는 간호사가 갖고 들어온 식판 위엔 엄청난 음식들이 가득했다. 늘 해왔듯 재빨리 칼로리를 계산해보니 무려 1,000 칼로리였다. 릴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절대로 이걸 다 먹을 순 없었다. 릴라는 어릴 때부터 길러온 기술을 동원해 음식을 숨기기 시작한다. 사과주스는 침대 시트에 소변을 본 것처럼 보이도록 흘뿌리고, 토스트는 작게 잘라 옷 속에 집어 넣고, 머핀은 손에 쥐고 끽끽 씹어서 옷 속 다른 곳에 숨겼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 아이로 머물 수 없는 미래의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거식증 소녀의 두려움

회진 시간, 메서 박사는 대체 왜 도망치려 했냐고 릴라를 다그쳤다. 이 병원도 치료도 다 지긋지긋해서 그랬다는 릴라의 말에,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병원이 아니라 ‘네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210일 째 릴라의 아슬아슬한 건강 상태를 지키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이야기하면서, 박사는 독방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한 말을 잘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릴라는 메서 박사가 자신이 왜 이런 아이가 되었는지 본질을 꿰뚫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몸무게도, 칼로리도, 지방도 아니다. 자연의 힘,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연의 힘에 릴라 자신은 절대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싶지 않다는 다짐을 그는 모른다. 그 힘에 굴복한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자신이 끔찍하리만치 두려워한다는 것이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지만, 박사는 모르는 것 같다.

심각한 거식증으로 7개월째 정신의학과 병동에 입원 중인 릴라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반은 사람, 반은 요정인 존재라고 믿고 싶다. 인도 출신 이민자인 부모님 밑에서 몸집이 통통한 아이로 태어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릴라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자연의 힘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릴라를 그런 생각으로 몰고 갔을까? 성숙한 여성이 되는 것에 대한 끝 모를 두려움, 상상력이 심하게 풍부한 소녀의 눈을 통해 영원히 아이로 살고 싶은 집착이 낳은 위험한 도전이 그려진다.

<저자 소개>

에이샤 마자라(Eisha Marjara)는 영화감독이자 작가로, 캐나다 국립영상위원회가 다큐드라마로 제작한 『Desperately Seeking Helen』과 독일과 캐나다의 합작 영화 『The Tourist』의 각본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을 수상한 2012년 영화 『House For Sale』의 각본을 썼다.